

고대장성 ‘연변변성’의 비밀을 찾아

중국 최동단의 현존 고대장성, 5개 현(시) 통과, 전체 길이 114키로미터



돌로 축조된 변성

현존하는 중국 가장 동쪽끝의 고대 장성인 ‘연변변성(延边边墙)’은 그 전체 길이가 114키로미터이며 화룡시, 룡정시, 연길시, 도문시, 훈춘시 등 5개 현(시)에 걸쳐있다. 연변 변성은 천년 력사의 변천을 목격하며 묵묵히 이 땅을 지켜왔다.

연변변성은 구축 형식이 다양한바 토축, 석축, 토석혼축 그리고 협준한 산세 등을 리용한 자연장벽이 있으며 성벽, 참호, 봉화대, 관문, 보루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

“연변변성은 화룡시 토산자진 오명(五明) 동산 구간의 벽체를 기점으로 점차 북행하다가 동쪽으로 꺾어들

어 도문시 곡수 구간에 이르러 일단 락된다. 도문시 량수진 동굴산 구간은 독립적인 벽체를 이루고 있다. 또 다른 한 구간의 변성은 훈춘 관문인 저자(咀子) 구간에서 시작되어 용천(涌泉) 구간에 이른다.” 연변조선족 자치주문화보호센터 부주임 장항빈이 소개하는 말이다.

이 구간의 장성은 대막동에서 산해관에 이르기까지의 서쪽 만리장성처럼 웅장하고 장려하지는 못하지만 독특한 지리적 위치와 풍부한 력사문화적 내포로 점점 더 많은 관광객과 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연변변성의 대부분 구간은 삼림 속



도문 구간의 연변변성 수남관 유적

에 묻혀있다. 도문 구간의 변성—수남관 유적은 무성한 수림에 가려져있지만 울창한 삼림 속에서 한채의 룡형 요새를 똑똑히 보아낼 수 있다. 요새의 바깥 둘레의 벽체는 돌로 되어있고 한 변의 길이가 20여미터, 높이는 근 2미터로 아주 잘 보존되어있다.

연변변성의 축조 년대는 력사 문헌에 거의 기록되어있지 않다. 학계에는 고려왕조 건축, 발해국 건축, 발해국 건설 시작 동하국 계속 사용, 동하국 건축 등 다양한 설이 있다.

장항빈 부주임은 계속해 “2010년부터 연변변성 전 구간에 대해 처음으로 전문적인 조사 정리 작업을 시

작했다. 2013년—2015년 센터는 연변변성 수남관, 미파역관에 대해 3년간의 고고발굴을 진행했다. 조사와 고고발굴을 거쳐 이것이 발해시기의 유적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연변변성의 발견은 우리 나라 고대 동북 변경지역의 정권과 군사 연구에 진귀한 실물자료를 더해준바 이는 발해시기의 지극히 중요한 사료이다. 동시에 연변변성은 력사가 유구하고 내포가 풍부해 길림성 및 동북지역의 력사 문화 자원의 사회 영향력을 제고하고 문화 정체성을 증강하는 데 비교적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 / 인민넷

다큐 《마왕퇴》 50 년간의 최신 고고학 성과 보여줘



중앙뉴스기록영화제작소(그룹)와 호남박물관, 중앙방송총국(CMG) 호남총국이 공동으로 제작한 3부작 다큐멘터리 《마왕퇴(马王堆)》가 일전 CCTV-1 채널에서 방영되었다.

매회 50분, 총 150분 분량인 이 다큐는 신비의 베일에 가렸던 한나라 무덤(汉墓) 마왕퇴의 모습을 관객들

에게 하나둘 드러냈다. 다큐는 〈신추(辛追)의 향연〉, 〈리희(利豨)의 서재〉, 〈리창(利蒼)의 정무청〉 등 3부작으로 나뉜다.

〈신추의 향연〉은 한차례 가족 연회를 시작적 기반으로 현장 재현과 마왕퇴 출토 의식주행 문화재 전시를 결부해 한나라 초기 선민들의 생활상과 인

문풍토, 사회면모를 보여준다.

〈리희의 서재〉는 특별한 각광을 받고 있는 마왕퇴 출토 백서(帛书) 문화재에 기반해 한나라 초기 고도로 발전한 과학기술과 문화 발전 수준을 보여준다.

〈리창의 정무청〉은 마왕퇴 한나라 무덤에서 가장 마지막에 발굴한 2호



무덤의 주인을 주선으로 마왕퇴의 가장 핵심적인 코드를 밝히고 한나라 초반의 정치와 경제, 문화를 펼쳐보인다.

다큐멘터리 《마왕퇴》는 2천여년 전 대후(軟侯) 가문의 삶의 현장과 현재 마왕퇴의 문화재 보호 연구의 시간간을 넘나들며 마왕퇴의 과거와 오늘을 보여준다. 중화민족의 피가 흐르는 고대와 현대의 인물들을 엮어내려간 이 다큐는 문화재의 이야기를 생생히 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력사 문화에 대한 현대인들의 전송도 전하고 있다. 지금까지 무려 4,000여명의 전문가가 마왕퇴 고고학 연구에 참여했으며 다큐의 실화 부분은 마왕퇴 고고학 연구의 최신 성과를 중점적으로 보여준다. / 국제온라인

600년 곤극과 600년 고궁의 만남, 《태화정음》 곧 무대에

상해곤극단과 고궁박물관이 공동 출품한 《태화정음(太和正音)》—고궁 곤극모음》(시즌 1)이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상해 북외탄 우방(友邦) 대극장에서 선보이게 된다.

“600년 곤극과 600년 자금성의 만남은 자연히 색다른 기쁨을 보일 것이다.”

국가연극원 원장이며 명감독인 전 신희은 오랜만에 초청으로 이번 작품의 총감독을 맡았다. 그는 곤극과 고궁의 조합은 자신의 창작 열정을 불러일으켰다며 궁정극을 다룬 극본은 대부분 세월의 흐름 속에서 다져진

우수한 대본들이기 때문에 이번 공연은 곤극에 있어서 심원한 의미가 있는 발굴 및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연 시 새 극장에 무대를 설치해 상해 관객들에게 그제날의 자금성으로 돌아가 공연을 관람하는 듯한 느낌을 선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추석’과 ‘중양절’을 주제로 한 《태화정음—고궁곤극모음》(시즌 1)은 고궁 소장품의 청나라 궁실 승응극(承应戏) 〈강주송주 동리소오〉(江州送酒 东篱啸傲)와 〈전복경〉(全福庆), 그리고 청나라 궁실에서 자주 공

연된 전설적인 작품 〈장생전〉(长生殿)을 각색해 〈강주송주〉, 〈중추주개〉(中秋奏凯), 〈장생전·재회〉(长生殿·重圆)의 3막으로 무대에 올리게 된다.

고궁이 소장하고 있는 청나라 궁실극 국본은 총 1만 1,498책, 6,467부, 3,200여종으로 알려져있다.

상해곤극단 단장 곽호호는 이번 협력은 고궁이 상해곤극단에 보물상자를 오픈한 셈이라며 상해곤극단은 그 수많은 대본에서 알맞는 극본을 고르는 데만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을 소요했다고 소개했다.



2

두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공연에서 도연명을 주인공으로 한 〈강주송주〉가 최초로 곤극 형식으로 무대에 등장하게 되며 제2막 〈중추주개〉에서는 젊은 ‘곤극반’이 문무의 실력을 선보이게 되고 제3막 〈장생전·재회〉에서는 재회의 애뜻한 사랑을 그려 관객들에게 다원화된 관람 체험을 안겨 줄 전망이다.

곽호호 단장은 고궁 국본을 각색하고 무대에 올리는 것은 상해곤극단의 한차례 ‘고대 연극 무대’로의 회귀이자 연극 본연에 대한 탐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곤극은 우수한 대본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전통극도 날로 줄어들고 있다며 “우리는 한편의 극을 무대에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고궁 소장 대본, 음악, 복식에 대한 심층적인 발굴을 통해 곤극 창작의 뿌리를 찾고 ‘문화유산 복구’의 장인정신으로 귀중한 문화유산을 활성화하며 배우들의 잠재력도 발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곽호호 단장은 고궁 시리즈 시즌2와 시즌3의 창작도 의사일정에 올려졌다며 “현대와 고대의 시공간을 초월한 대화를 통해 연극에 더 강한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온라인

2025년 CMG 음력설야회 주제 및 로고 발표



중앙방송총국(CMG) 음력설야회의 주제와 로고가 발표되었다.

을사년(巳年)의 해 음력설야회가 ‘사사여의(巳巳如意) 생생불식(生生不息)’을 주제로 상서롭고 화기에 애한 분위기 속에서 설날그믐날 밤 전세계 중국인들과 만나 음력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

‘사사여의 생생불식’은 계승과 혁신의 깊은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사(巳 si)는 양기가 솟아나고 음기가 사라지며 만물이 소생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가 겹치면 중국

의 ‘여의’(如意) 전통 문양과 비슷하다. ‘사사여의의 만사형통’은 을사년 뱀의 해와 여의로움의 절묘한 결합으로 상서롭고 행복한 축복이 담겨져있을 뿐만 아니라 중화민족의 정신적 명맥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대적 힘을 보여준다.

중앙방송총국 을사년 음력설야회는 설날그믐날 밤 전세계 중국인들의 안방을 찾아 만사형통의 축복을 전하며 따뜻하고 즐거운 을사년 뱀의 해를 함께 맞이할 전망이다. / 중앙방송총국

[무형문화유산]

나무잎그림, 3,000여년의 력사 자랑



해마다 가을이 되면 나무잎그림(叶画, 엽화) 무형문화유산 전승인인 사랑은 북경의 곳곳을 누비며 잎사귀 찾기에 분주하다.

3,000여년의 력사를 지닌 나무잎그림 예술은 잎을 매개체로 잎의 자연적인 형태와 맥락을 교묘하게 리

용해 그림을 그림으로써 자연미와 예술미의 조화를 이룬다.

사랑은 자신은 가을을 가장 좋아한다며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아롱진 나무잎에서 무한한 창작 영감을 얻는다고 말한다. / 중앙 TV

축수문화와 희수·산수·미수·백수·차수란?



우리 나라에서 로인을 존경하는 효과는 전통 미덕으로서 축수(祝寿) 문화 풍습에서도 잘 드러난다.

축수를 나타내는 말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이를테면 60세는 회갑(花甲寿), 만수(満寿), 하수(下寿)라 하고 70세는 고희(古稀寿), 고수(高寿)라 하며 80세는 대수(大寿), 중수(中寿)라 하고 100세는 상수(上寿)라 하는 등이다. 하다면 전통문화 습속 가운데의 희수(喜寿), 산수(傘寿), 미수(米寿), 백수(白寿), 차수(茶寿)는 각각 무엇을 가리킬까? 여기에는 축수문화의 오묘한 학문이 깃들여있다.

축수문화에서의 ‘수’(寿)자는 옛사람들이 한자의 글자체, 쓰기, 구조를 사람의 나이 표현에 교묘하게 운용해 재미있는 표현과 호칭을 만들어낸 것이다.

축수문화에서 희수(喜寿), 산수(傘寿), 미수(米寿), 백수(白寿), 차수(茶寿)는 각각 77세, 80세, 88세, 99세, 108세를 뜻한다. 그 풀이는 아래와 같다.

77세를 뜻하는 ‘희수’(喜寿)는 전통 서예에서 ‘희자의 초서(草书)체가 ‘七十七’를 세로 쓴 모양과 아주 흡사한 데서 얻어진 이름이다. 80세를 대표하는 ‘산수’(傘寿)

는 ‘伞’자의 모양이 ‘八十’를 세로 쓴 모양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이다.

88세를 ‘미수’(米寿)라 함은 ‘米’자를 분해하면 우와 아래에 각기 ‘八’자가 있고 중간에 ‘十’자가 있기에 합치면 바로 ‘八十八’ 즉 88이 되기 때문이다.

99세를 뜻하는 ‘백수’(白寿) 역시 글자를 분해한 것으로 ‘百’자의 웃머리 ‘一’를 뜯어내면 ‘白’자가 되고 게다가 100(百)에서 하나(一)를 뺀 바로 99이기에 99세를 ‘백수’(白寿)라 칭한 것이다.

108세 ‘차수’(茶寿)의 글자 풀이는 좀 복잡한데 ‘茶’자의 ‘艹’는 두개의 ‘十’로 구성 즉 스물이다. 중간 ‘人’자는 벌리면 ‘八’가 된다. 그 아래의 ‘木’자는 또 ‘十’와 ‘八’이다. 중간과 밑을 합치면 ‘八十八’ 88이 되고 거기에 글자 웃머리의 ‘艹’ 즉 ‘二十’ 20을 합치면 합계 108이 나온다. 따라서 108세를 ‘차수’(茶寿)라 하는 것이다.

글자체 형태도 좋고 글자의 분해와 조합도 좋고 모두 전통문화 속의 예술로서 한(漢) 언어 문화가 풍부하고도 심오함을 나타내며 옛사람들의 총명과 지혜를 보여준다. / 종합